

일제말(1937~45) 청년학생층의 국내외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인식

변 은 진*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임시정부와 미국 李承晩의 항일운동에 대한 인식 |
| 2. 만주지역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인식 | 4. 과거 항일운동 평가와 당대의 전망 |
| 1) 金日成 중심의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인식과 실천 | 1) 과거 항일운동에 대한 평가 |
| 2) 김일성 개인에 대한 이해와 기대 | 2) ‘영웅 출현’에의 희망과 당대 인식 |
| 3. 중국·미주지역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인식 | 5. 맺음말 |
| 1) 임시정부와 중국관내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인식 | |

1. 머리말

일제말 전시과시즘기(1937~45)는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파쇼적인 침략 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해감으로써 식민지 조선에 대한 수탈과 조선인에 대한 통제 및 동원이 극한에 달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 역시 가장 심했던 상황이라 기왕의 민족운동 조직들도 대부분 와해되었으며, 조선 내외를 막론하고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세력이 늘어가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암흑기’, ‘민족운동의 암흑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왔다.

* 고려대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 논저 : 『제국주의시기 식민지인의 ‘정치참여’ 비교』(공저, 2007, 선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공저, 2004, 선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공저, 2004, 아연출판부), 『통일지향 우리민족해방운동사』(공저, 2000, 역사비평사) 외 다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시기는 전체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독립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만주와 중국 등지에서는 여전히 항일무장투쟁세력이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에 맞서고 있었고, 조선이나 일본 내에서는 비록 규모가 작고 단발성을 띠었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의 움직임이 존재했다. 비록 많은 한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3.1운동 이래 국내외 항일운동, 특히 일제가 패망하는 순간까지 조선인이 해외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사실이 없었더라면, 2차대전 종결 당시 대다수 국가들이 추축국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의 독립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¹⁾

이상을 전제할 때, 그렇다면 일제에 의한 철저한 검열과 사상통제가 존재하던 상황에서, 당시 일반 조선인은 조선 내외에서 전개되어왔고 또 전개되고 있던 조선인의 항일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최대한 규명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에 태어나 일제가 형성한 사회구조와 공식 교육체계를 경험한 청년학생층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청년세대는 일제가 주입하는 제한된 정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층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시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정보를 접하거나 상황을 해석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일제말 전시파시즘기에 조선과 일본에서 최소한 200여 개 이상 조직되었던 소규모 독서회나 비밀결사는 대부분 조선인 청년학생층이 주도한 것이었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년학생층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하고자 했던,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청년학생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음을 미리 밝혀둔다.³⁾

1)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미국, 소련측 문헌이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2) 강만길 외, 『통일지향 우리민족해방운동사』, 2000, 역사비평사, p.237.

3) 이 글에서 학생 중심의 비밀결사들을 언급할 때의 ‘학생’은 적어도 중등학교 이상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취학연령이 높았던 일제하에서는 중등 이상의 경우 저학년이라도 운동의 주체로 볼 수 있다(趙東杰, 「韓國近代學生運動組織

신간회 해소와 1930년대 혁명적 대중조직운동,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등 사회주의계열의 민족운동이 와해된 이후 조선 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민족운동 지도조직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으로는 1939년에 결성된 경성콤그룹이 있었으나 1941년 말에 대부분 검거되었고, 1944년에 가서야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된 정도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 아래서 그나마도 모두 철저한 지하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일반 조선인이 그 존재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록 상대적으로 선진적 모습을 띠었다 할지라도, 당시 비밀결사를 조직하거나 조직하려 했던 청년학생들 역시 민족운동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고 체계적인 지도나 사상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조선인이 대부분이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당시의 청년학생층이 일제의 왜곡된 선전 아래서 당대에 진행되고 있던 국내외 항일민족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 조선의 민족운동에 대한 반성 아래 그들 스스로는 무엇을 희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세력에 대한 인식

1) 金日成 중심의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일제말 전시과시즘기에 청년학생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민족운동세력은 金日成을 중심으로 한 만주의 무장부대였다. 당시 동북항일연군으로 편제되어 있던 만주지역 조선인 항일무장투쟁세력에 대해, 청년학생 등 일반 조선인들은 주로 ‘김일성부대’라고 불렀다.

‘김일성부대’가 조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이유는 조선 내에서

의 성격변화』,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究』, 1993, 지식산업사, p.201). 하지만 당시 비밀결사가 반드시 중등학교 이상의 입학 경험을 가진 학생들에 의해서만 조직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광범위하게 통칭하기 위해 주로 ‘청년학생층’이라고 표현했음도 아울러 밝혀둔다.

이렇다 할 만한 민족운동세력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던 지역이 만주였으며,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對滿 정책의 변화로 인해 만주는 일반 조선인도 자주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 무장부대의 존재는 1937년 ‘보천보전투’나 이후의 ‘혜산사건’ 등으로 인해 『동아일보』 등 신문지상에 몇 차례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⁴⁾ 1930년대 이래 조선인이 무장력을 가지고 국경 일대에서 일본군·경찰과 ‘직접’ 전투를 전개했다는 사실은 風聞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1920년대 초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활동이 있기는 했으나 오랜 기간 개별적인 테러 외에 조선인이 조직적으로 ‘직접’ 일제의 무장력에 맞서 싸웠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국내 진격을 목적으로 ‘조선인부대’가 무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년학생층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조선인의 문맹률이 높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식을 접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지만, 이러한 소식은 국경 근처나 만주를 왕래하던 주민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풍문을 통해 전달되는 ‘사실’들은 오히려 조선민중에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김일성을 둘러싼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하기도 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퍼져 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신화 창출’도 가능했다고 보여진다.⁵⁾

4) ‘보천보전투’는 「咸南普天堡를 襲撃, 郵便所 面所에 衝火, 昨夜二百餘名이 突然來襲, 普校 消防署에도 放火, 咸南警察部에서 出動, 金日成 一派로 判明, 追撃警察과 衝突, 兩方死傷 七十名, 對岸廿三道溝에서 交火, 惠山 新架坡 好仁等三署警官 總出動」(『東亞日報』, 1937.6.5), 「機關銃 가진 二百餘名 越境, 普天堡市街를 襲撃衝火, 駐在所 郵便所 普校 面所에 放火, 電線切斷, 詳細한 被害未判, 民家數戶에도 放火即死一名, 負傷二名, 百餘戶, 千餘住民 사는 堡田村落 全滅狀態, 携帶 電話機 갖고 惠山鎭서도 動員, 金日成一派로 判明, 咸南警察部에서 出動, 激流에 筏 띄우고 越江, ‘비라’ 撒布코 來襲, 惠山署 守備隊 憲兵隊出動 對岸二, 三道溝로 逃亡」(『東亞日報』, 1937.6.6) 등 『東亞日報』 1937년 6월 5~14일자 신문에 수차례 보도 되었다. 한글신문뿐만 아니라 「共產匪二百名越境し郵便所, 學校等を襲ふ」(『京城日報』, 1937.6.6) 및 「若葉に跳る匪禍, 金日成の一味百名 甲山郡普天堡を襲撃」(『元山毎日新聞』, 1937.6.6) 등 일본어신문에서도 기사화 되었다.

어쨌든 만주지역 무장투쟁세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제에 저항하면서 민족운동을 모색하려 했던 선진적인 청년학생층에게는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했던 측면도 있었다. 선진적인 청년학생층이 중심이 된 당시의 소규모 비밀결사들 사이에서는 김일성 등의 활약상을 토론하면서 만주로 가서 합류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비밀결사에 가담하지 않은 청년학생들 가운데서도 무장투쟁을 목적으로 만주로 건너가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일부 비밀결사에서는 직접 만주에 가서 “재만 조선인의 민족의식이 매우 크고 김일성은 조선독립을 목표로 무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도 했으며, “소련에도 정치적 불만을 가진 다수의 조선인이 있으므로 蘇日開戰이 되면 서로 호응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⁶⁾

당시 조선 내외에서 항일민족운동을 꿈꾸던 많은 청년들은 ‘김일성부대’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환상을 바탕으로, 만주로 건너가 그의 지도 아래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1939년 12월에 新井仁鍾(雇人, 21세) 등 20세 전후의 청년들은 “만주국으로 가서 匪賊이 되어 그 곳에서 항일전의 거두 김일성과 연락하여 조선의 독립 및 공산화를 위해 운동해야 한다”고 협의했다. 이들은 1940년 7월에 이에 필요한 여비·여권 등의 입수방법을 모색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각자가 관청·공장·회사 등에 들어가 동지들을 조직화하여 실천하겠다고 다시 정리했다.⁷⁾ 또 다른 예로서, 1942년 4월 金鎭珪, 金田雲鶴, 淸川龍雲 등은 “(김일성이-필자) 국내로 진입하여 ... 조선에 독립국을 건설하려고 국민운동을 일으킬 것이니 이에 협력하기 위한 독립결사의 준비조직으로서 ‘民族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⁸⁾

5) 1932년 ‘만주국’이 건립된 이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의 무장부대는 실제 일제 군·경찰력과 가장 많은 交戰을 전개했다. 그것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사변’ 및 ‘지나사변’ 관계 경찰 ‘공로자’ 상신서들을 보면, 당시 일제경찰이 훈장을 수여받아야 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김일성부대’나 ‘최현부대’와 전투했다는 사실이었던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6) 『昭和19年刑公 第373號(判決文)』, 1944.6.12,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 11, pp.525~546.

7) 『昭和17年刑公 第9號(山岡龍範 등 判決文)』,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 9, pp.137~172.

또한 일본 홋카이도[北海島]에 징용되어 土工으로 일하던 文鍾達, 金甲淳(21세), 金正來(21세), 張福成(41세) 등의 그룹에서 1944년 5~6월경에 서로 논의한 몇 가지 내용들 가운데에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실로 위인이다. 그는 일본인을 전멸하고 조선을 독립시켜 스스로 조선을 지도해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조선에도 이와 같은 위인이 있어서 마음을 쓰고 있다. 이 사람은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隊 조직을 이루고 있다. 나도 그 대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해볼 생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⁹⁾

이처럼 당시 조선이나 일본지역에서 결성된 청년학생 비밀결사들의 논의를 보면, 예를 들어 “日美開戰이 되어 일본이 패하면 그 때 김일성이 조선독립운동을 일으켜 조선은 독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위해 학교 졸업 후에는 김일성의 부하가 되자”라는 식의 협의를 종종 볼 수가 있다.¹⁰⁾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실제로 직접 만주로 건너가거나 건너가려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주는 활동을 했다.¹¹⁾

당시 항일운동진영에서는 구체적인 독립방략으로,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해외의 무장투쟁세력이 조선 내로 진격하면 여기에 호응하여 민중들이 폭동적인 봉기를 일으켜 서로 합세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개 서로 일치되어 있었다. ‘김일성부대’에 합류하겠다는 청년학생층의 생각은 자신의 힘이 그 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고민의 결과 개별적으로 만주에 건너가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준비하려 했던 것이다. 또 이 모든

8) 海州地法, 「地檢秘 第765號(公判請求書)」, 1943.11.25, 『鮮內檢事局情報』, 1943, pp.76~77.

9) 「在札幌朝鮮人民族主義グループ檢舉取調狀況」, 1945.6,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30, 1976, みすず書房, p.767. 동일한 자료가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에도 실려 있으나, 여기에는 이들이 협의한 내용 4가지 중에 위에서 언급한 부분(네 번째 부분)은 번역 수록되어 있지 않다(pp.276~277쪽).

10) 京城地法, 「昭和16年刑公 第2591號(李欄 등 判決文)」, 1942.5.19, 李欄 등 춘천 공립중학교 학생들의 治安維持法 위반 사건 판결문 중에서.

11) 예를 들어 한학자 이구영은 독서회 활동 중이던 1943년에 만주로 가려는 청년에게 자금을 대주다가 검거되었다고 한다(『남파공작원이 된 의병장 아들, 이구영의 삶』, 월간 『말』, 1991.7, p.85).

게 여의치 않으면 조선 내에서라도 민중을 계몽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과 건국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청년학생들이 실제로 만주 등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선이나 일본에 있는 청년학생의 경우 일단 여비 마련에서부터 곤란에 부딪혔고, 설령 건너간다 해도 무장부대에 합류할 수 있는 경로를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원병·징병·학병 등으로 끌려갔다가 조선인 중심의 무장부대에 가담하려고 탈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예로 소학교 때부터 김일성을 영웅으로 존경해왔다는 平沼世均(19세)은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으로 ‘공산민족주의사상’ 하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무장독립단을 조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부대에 참가하기 위해 1942년 1월 신의주에 있는 숙부 집에 머물면서 ‘독립단’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1943년 3월에는 직접 하얼빈으로 건너가 러시아어까지 배워가면서 ‘독립단’의 소재 파악에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¹²⁾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서 1942년 6월에 전주사범학교에서 조직된 ‘우리회’의 강령과 활동을 살펴보겠다. 전주사범학교 우리회의 강령 중에는 “4) 우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선발대가 되어 독립운동의 온상인 만주로 국경을 넘어가서 활동한다, 5)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업을 계속하고 졸업 후 함경도나 평안도로 발령되도록 지원하여 만주에 인접한 곳의 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만주 독립운동가들과의 연락을 신속히 취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43년 2월 졸업생 가운데 金學吉, 朴完根, 李東源, 李壹男 등은 渡滿先發隊로 자원하여 만주의 吉林省 叙蘭縣 包家屯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1944년 2월까지 근 1년간 막노동이나 직공 등으로 생활하면서 야간에 토론회를 조직하는 활동을 하면서 활로를 모색했다. 김학길은 포가둔에서 투쟁기반 구성을, 박완근은 국경지대로 잠입하여 독립군과의 접선을, 이일남은 국내와의 연락 및 조직 확대와 자금 조달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했다. 만주 무장부대

12) 新義州地法, 「地檢秘 第87號(公判請求書)」, 1943.1.12, 『鮮內檢事局情報』, 1943, pp.519~522.

에의 합류 계획이 실패한 후에도 이들은 1944년 5월 그 곳에 있는 조선인 대상의 일본어강습소에 강사로 들어가, 우리역사, 우리말의 과학성과 우수성, 미·영과의 장기전에서 일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¹³⁾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 만주의 동북항일연군 세력은 1940년 8월 소하르파령회의를 거쳐 10~12월 소련영내로 퇴각하여 하바로프스크 인근에서 야영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후 1942년 8월 소련에서 항일연군 教導旅(소련극동방면군 제88보병여단)에 참여하여 조선 내 정탐활동 등을 했으며, 1945년 7월 중공동북당위원회 내의 조선공작단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없었던 청년학생들은 대부분 1940년대 이후에도 만주에서 ‘김일성부대’가 활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1930년대 만주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활약은 1937년 보천보전투를 거쳐 1940년대 들어 도리어 더 유명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만주로 건너가려 시도하는 사례도 1940년대 이후 더욱 증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만주의 무장부대에 합류하기는 어려웠다.

청년학생층 가운데는 동북항일연군 세력이 소련영내로 이주한 이후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극히 드물었으며, 더구나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는 없었다. 1943년 당시 일본 교토[京都]의 聖峯中學에 다니던 和山昌永(22세) 등은 “러시아에 있는 조선인이 일본군에 대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듣고 이들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듯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으며, “러시아에는 조선인이 많이 가서 러시아군대에 들어가 훈련받고 있다. 그 중에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독일 베를린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어떤 연사의 강연회에서 들은

13) 『전북지역독립운동사』, 1994, 전북지역독립운동추모탑건립추진위원회, pp.538~541.

14)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1999, 아시아문화사, pp.489~490 ;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보병독립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pp.280~285 ; 정병준, 『광복 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123~127.

내용 때문이었다. 그 연사는 강연회에 일본인만 모인 것으로 착각하고 “시베리아 어느 곳에 주위 1리나 되는 陣地가 있고, 그곳에서 조선의 깃발이 서 있고 조선인 병대가 수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이다.¹⁵⁾ 이렇게 우연한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단편적인 내용이 당시 조선이나 일본에 있던 청년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의 거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김일성부대’는 소련영내로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내로 密偵를 파견하여 군사적 정탐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일성부대’ 조직활동의 영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스스로 김일성의 부하로 자신이 파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년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 효고현[兵庫縣]의 오타니중공업주식회사[大谷重工業株式會社] 아мага사키공장[尼崎工場]에서는 조선인 징용 노무자들을 중심으로 일제측의 통제조직인 협화회(協和會)를 활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가운데 ‘협화훈련대 특별청년회’의 光田炳奎(27세)는 조선에 있을 때 우연히 김일성 휘하의 高英石이라는 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기숙사를 중심으로 노무자들을 조직했다가 검거되었다.¹⁶⁾

머지않아 蘇日開戰하면 이에 호응하여 조선도 일어서야 한다. 1945년 8월경 만주의 김일성이 조선에 침공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준비공작으로서 나는 조선청년의 통일 및 식량 확보를 위해 조선인 농가 각 戶에서 쌀 3升을 준비하고 그 확보 有無를 표시하기 위해 문패 뒤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사명을 띠고 김일성으로부터 지금 밀파되었다. 조선청년은 장차 조국독립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므로 크게 활약하도록 나는 지금부터 황해도·전라도·충청도·경상도 각지에서 신발장사를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있다.

15) 明石博隆·松浦總三 編, 『昭和特高彈壓史』 8, pp.190~191 ;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p.1403~1404.

16) 「警保局保發 第23號, 共匪金日成ノ鮮內兩地へ特殊密偵派遣ニ關スル件」, 1941.11.8, 『現代史資料』 30, pp.763~767 ;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1425.

고영석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광전병규는 “조선 내보다는 차라리 조선청년들 다수가 일하는 일본 노무자로 移入하여 집단생활을 통해 조직을 결집한 후 김일성의 조선침공에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한다.¹⁷⁾ 당시 이 공장에서 식당 보일러공으로 일했던李大奎 역시 8.15 해방 이후에 “그 사람들(위의 협화훈련대 특별청년회 사람들 - 필자)을 통해 백두산에서 김일성 장군이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국에 凱旋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¹⁸⁾

한편 아예 ‘金日成隊’라는 명칭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독립 후 조선의 최고 지도자는 김일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1944년 12월 제3차 징용자가 되어 1945년 3월 7일부터 일본 니가타철공소[新潟鐵工所]에서 일하던 한 청년은, 조선에 있던 1944년 6월 숙부 이창준(李昌俊)을 통해 ‘김일성대’라는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고 그 표식으로서 獨立團體旗 1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니가타철공소에 함께 징용된 88명을 대상으로 줄곧 태업 등 일제의 군수생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했으며, 동료들 중에서 동지를 물색해 도주시켜 김일성대에 가입시키려 했다. 심지어 그는 징용공의 도주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동지들에게 ‘집단 도주’를 권유하여 실제로 3월 31일에 88명 중 14명을 도주시켰고 그들을 김일성대에 가입시키려는 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¹⁹⁾

이와 같이 ‘김일성부대 파견원의 공작’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간혹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따라서 실제로 당시 청년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전부터 떠돌던 직접적인 전투 소식 등의 풍문이었다. 한편 만주로 가서 무장부대에 합류하는 데 실패하거나 여건상 만주로 가지 못한 청년학생들은 김일성 등 해외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국내 진격에 대비하여, 민중계몽활동, 각종 군수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17) 위와 같은 자료.

18) 『兵庫と朝鮮人』, 兵庫朝鮮關係研究會, 1985, pp.106~107.

19) 「徴用移入朝鮮人勞務者集團逃走ニ關聯スル朝鮮獨立運動等ノ件ニ關スル件」, 1945.6.25, 일본육해군성문서 중에서. 그의 이름은 松本一?인데 한 글자는 판독이 어렵다.

획득 등을 준비하고 조선민중의 역량을 결집하며 이들을 훈련·조직화하여 민중봉기를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했다.

2) 김일성 개인에 대한 이해와 기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제말 전시과시즘기에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은 비록 정확하지는 않아도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주로 ‘김일성부대’라고 칭하면서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일성 개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주국에서 馬賊을 인솔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인물,²⁰⁾ “현재 만주국에서 匪賊 두목이라는 김일성은 조선인으로서 우리 조선독립에 관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라는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²¹⁾

이 시기 청년학생층이 김일성이라는 인물 개인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고 그조차도 대부분 잘못된 事實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일본에서 土工으로 일하던 松村隆春(25세)이 1945년 초 동료 토공들에게 한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김일성이 미국의 원조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²²⁾ 김일성 개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특히 사실과 다른 인식이 많았는데, 단적인 예로서 겸이포에서 보통학교 졸업 후 집안의 상점에서 심부름을 하던 趙龍三(24세)이 1941~42년 당시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겠다.²³⁾

김일성은 조선인으로 경성에서 태어나 東京帝大를 중퇴하고 만주로 가서 馬賊의 두목이 되었다. 일본 헌병이 마적을 잡아 두목의 이름을 물으

20) 전북 금산의 문방구 점원인 文大植(20세)이 1941년 3월 25일에 한 말 중에서(『독립운동사』 6, pp.291~292).

21) 1941년 7월 당시 일본방적주식회사 청진공장에서 일하던 豊田台九(20세), 金龍萬(20세) 등이 한 말 중에서(『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중에서).

22) 「旭川土工朝鮮獨立運動事件關係被疑者松村隆春檢學に關する件」, 1945.5.13, 일본육해군성문서 중에서.

23) 海州地法, 「地檢秘 第766號(公判請求書)」, 1942.11.25, 『鮮內檢事局情報』, 1943, pp.90~93.

니 김일성이라고 했다는데, 김일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은 알지 못한다. 무기는 러시아에서 사 오고 있다. 1년에 3번은 조선의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시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만주에서 오므로 조선에 왔던 것도 모른다. 김일성은 마적의 두목이라고 일본군에서도 알고 있는데, 너무 그 부하가 많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다. 김일성은 조선독립을 위해 마적 두목으로 있다. 김일성은 실로 위대한 인물이다. (1941년 7월)

김일성은 조선 독립을 위해 만주국에서 싸우고 있다. 김일성은 근소한 군대로 일본군과 싸우고 포위당해도 처참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을 일본군이 한 번 체포했어도 죽이지는 못했다. 그는 불 속 같은 곤경에서도 조선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넓고 자유로운 곳에 있다. 김일성 같은 위인은 조선에도 김 모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 조선인은 明治 몇 년 경부터 일본인에게 구속받으며 살고 있는데, 김일성처럼 한 번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김일성은 조선의 히틀러와 같은 영웅이다. (1941년 11월)

만주에서 匪賊 두목으로 있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피스톨 사격을 매우 잘한다. 그 사람은 전방 100미터에 煙草를 든 사람을 세워 그 연초를 맞춰 떨어뜨릴 수 있다. 김일성은 조선인이다. 일본의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부하에는 다수의 조선 사상가가 있다. 일본군에서 김일성을 여러 차례 토벌했는데 험준한 데로 옮겨가면서 交戰을 계속하므로 토벌할 수가 없었다.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부하의 지휘도 잘 한다. 김일성은 조선독립의 사상가이므로, 조선도 기회가 오면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런 위대한 김일성도 있으니 조선의 現存에 너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족한다는 것은 학문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매우 불행한 자이다. 대체로 조선에는 학교가 적다. 그 이유는 일본인이 조선인이 자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놈들은 전부 피스톨로 射殺하고 싶다. 내가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와 비행사다. 소련으로 가서 비행사가 되어 폭탄을 많이 싣고 와 일본 놈들을 죽이고 싶다. (1942년 2월)

평남 대동에서 태어난 김일성을 경성 출신이라 하거나, 일찍이 吉林으로 가서 학교를 다녔고 민족운동 조직에 참가했던 김일성을 일본 도쿄제

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 등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일성이 대학까지 졸업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위의 사례만이 아니라 다수가 확인된다. 예를 들면 청진에 있던 金浦允極은 1941년 11월 梁川世一에게 “현재 만주국에 잠복하고 있는 김일성은 조선인으로서 대학까지 졸업한 자인데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다수의 동지를 획득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우리도 조선독립운동을 하자”고 권유했다.²⁴⁾

이처럼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김일성부대’의 활약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과 풍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일성 개인에 대한 ‘신화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김일성 개인을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문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로까지 둔갑시켰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신화적’ 인식은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퍼져 나갔다. 한 예를 들면, 빈농 출신으로 일용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경성에 정착하여 고물상을 하던 李警聲(28세)은 1943년 11월 “(김일성은-필자) 원래 조선에서 민족해방운동에 힘쓰던 중 검거를 피해 만주국으로 도망한 자인데 다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神人처럼 6일 앞의 일을 豫知하는 영웅”이라고 믿었다.²⁵⁾

당시 민족운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학생들 사이에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조선에도 ‘민족적 영웅’이 출현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부분 절실히 공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일성에 대한 소식이 퍼져 갔으며, 따라서 자연스레 그에게 일정한 기대감을 스스로가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청년학생층이 바라던 ‘영웅’은 전체 조선민족을 통일적으로 지도해갈 수 있는 인품과 지식, 의지와 실천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상당한 무장력을 가지고 부대를 통솔하고 있다고 판단한 김일성을, 대학까지 졸업했다는 학문적 지성과 행동상의 과감한 실천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한 인물의 典刑으로 믿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인 차원의 바람과 기대, 그리고 실제 만주지역 무장투쟁의 성과

24) 清鎮地法, 「地檢秘 第29號, 昭和17年刑公 第14號(判決文)」, 1942.12.3, 『鮮內檢事局情報』, 1943, pp.455~456.

25) 京城地法, 「昭和20年刑公 第481號(判決文)」, 1945.4.26, 『독립운동사자료집』 12.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 존재했던 김일성에 대한 ‘신화적 환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조선인 사회 일각에서는 ‘김일성부대’의 활약상과 그에 호응하고 싶어 하는 민중층의 봉기 준비에 대해 위기의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일제 관현측에서 1938년에 일어난 ‘장고봉사건’에 대한 조선인측의 의견을 조사한 가운데, 경기도 출신으로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쳤고 당시에 일본에서 저술업에 종사하던 鄭然圭(39세, 特要鮮甲)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백두산에는 상당수의 공산주의자가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면서 상당한 무기도 가지고 있으므로 蘇日開戰 때는 이들 不逞分子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 내에서 動亂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다.²⁶⁾ 대체로 일부 지식인이나 기성세대가 많이 표방했던 이러한 인식의 경우, 김일성 중심의 만주 무장투쟁세력이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측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는 것을 경계하여 1938년도 들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전방침을 강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일제당국 역시 김일성이 일반 조선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진 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⁷⁾

- 1) 겨우 27세의 젊은이로서 겨우 보통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필자).
- 2) 그는 오랫동안 만주의 僻地를 巡廻하여 時勢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
- 3) 그는 조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조선 내에 침입하여 무모한 백성의 곡식과 저축한 금품을 강탈하여 私腹을 채우고 있다는 것.
- 4) 그의 실력이랬자 겨우 4~5백 남짓의 雜匪로서 日本 軍警에 비교하면 문제가 없어 도저히 일을 이룰 전망이 없다는 것.
- 5) 감히 살인·강도의 참학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국부적이라는 것.
- 6) 조선의 독립, 공산주의 실현과 같이 荒唐無稽한 言辭를 지껄이며 도저히 불

26) 特內鮮 第2013號, 「張鼓峯事件に對する在京朝鮮人の動靜に關する件」 제5보, 1938.8.9, 『警視廳情報』(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경무 문서 중에서).

27) 『警備關係綴(國境ノ部)』, 1938, 警務課(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경무 문서 중에서).

가능하고 불합리한 것을 기도하고 있음은 畢意·誠見·力量의 결핍을 폭로하는 것으로서, 큰 인물은 고사하고 보통 인물도 못되는 과대망상가라는 것.

그런데 당시 선진적인 청년학생층 내에서는 김일성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왕의 연구 결과대로 만주의 김일성 집단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철저히 민족통일전선적 관점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항일무장투쟁을 감행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으므로 그를 전체 민족을 통일되게 이끌어 갈 민족적 지도자로 선망했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오히려 김일성을 철저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공산민족주의’ 내지 ‘민족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일제 전시파시즘기에 상대적으로 선진성을 지닌 청년학생들은 김일성이라는 인물과 그가 이끄는 만주 무장부대의 항일투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이나 일본에서 청년학생들이 조직한 수많은 비밀결사들에서는 무장봉기를 목표로 준비활동을 하건 민중계몽 활동을 하건 어느 쪽을 막론하고, 대체로 향후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이들 집단에 호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3. 중국·미주지역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인식

1) 임시정부와 중국관내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인식

일제말 청년학생층의 중국관내 항일민족운동 조직이나 인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막연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 항일세력과는 달리,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일제 군경과의 전투 소식이 풍문으로라도 퍼져가기 어려운 조건에서 높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청년학생층 사이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중국국민당 蔣介石 휘하 부대에 조

선인이 참여한다거나 八路軍 등 공산당 계통의 부대에 조선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어 활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만주의 조선인 항일무장부대와 마찬가지로 중국관내에도 조선인의 무장부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고무되기도 했다. 이 시기 청년학생층 중심의 비밀결사들에서 종종 거론되던 해외 조선인에 의한 ‘독립군’ 혹은 ‘독립부대’는 동북항일연군이나 한국광복군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군과의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중국 화북지역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조직에 대해서는 청년학생들이 소식을 접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 야마구치[山口]고등학교에서 조선인 학생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麗友會에서는 “현재 장개석 밑에는 조선인 장교가 다수 있다. 또 중국 만주에는 조선 독립을 위하여 감투하면서 있는 동지 단체가 다수 있다. 이들이 함께 무기를 가지고 봉기할 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과 제휴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였다.²⁸⁾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으면서 또 일정하게 엘리트집단에 속했던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관내 광복군과 만주지역 무장부대가 ‘함께 봉기’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대체로 중국 관내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해외 무장투쟁세력이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현재 일제와 ‘싸우고 있다’ 정도로 막연히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해외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풍문을 통해서라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1923년 국민대표회운동 실패 이후 분열되어 사실상 정부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하나의 개별 독립운동단체로 변하는 침체기”를²⁹⁾ 맞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이후 한국국민당 · 한국독립당 · 조선혁명당 등 3당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독립당 중심의 임시정부로 편성되었다. 이어서 일부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한국광복군에 편입되면서 새롭게

28)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1235.

29)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1994, 창작과비평사, p.51.

통일적인 임시정부가 구성되어 국제적인 ‘임정 승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렇게 1940년대 들어 광복군과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조선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던 면이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 重慶에 있던 임시정부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정부’로서의 내부 구성 등을 알 수 없었던 청년학생들로서는, 과거 1920~30년대에 임시정부에 대해 듣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당시에 여전히 임정이 上海에 있다거나 ‘분열’되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2) 임시정부와 미국 李承晩의 항일운동에 대한 인식

임시정부와 중국관내 항일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에다가 아울러 미국에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자처하던 이승만 중심의 활동 소식까지 접하게 되자, 조선 내에 있던 청년학생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했다. 국민대표회 결렬 이후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령제로 바뀌어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되는 등의 변화를 거쳤다.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은 여전히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행세했고, 국내의 조선인 사이에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을 통해 조선에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전개했다. 이 시기 몇 차례 개별적·조직적으로 검거되었던 ‘단파방송 청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만 중심의 이러한 활동은 조선과 일본에 있던 청년학생층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해외의 단파방송은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의 중경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송출되는 것이었다. 중경의 방송은 적어도 1941년 봄부터, 미국의 방송은 1942년 중반부터 시작되어, 중경의 단파방송이 미국보다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주관한 것은 전시정보국(OWI) 해외부 태평양국 한국과였으며, 이를 감독한 것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문제로 경성의 경신학교 교장직을 사퇴한 후 1942년 5월말 미국으로 추방되어 태평양국 한국과 고문으로 활동하던 선교사 쿤스(Edwin Wade Koons, 1880~1947)였다. 이승만은 1942년 이래 여러 차례 영어와 한국어로 조선을 향해 방송했는데, 그의 한국어 방송은 특히

1942년 6~7월 사이에 집중되었다.³⁰⁾

침략전쟁이 확대되어 장기전이 되면서 물리력에서 약세를 보였던 일제는 여러 차례 패전의 고비를 맞보면서도 조선인에게는 무조건 일제가 ‘승전’을 거둬주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선전하였다.³¹⁾ 따라서 구체적인 戰況을 알 수 없었던 조선인 사이에서는 일제의 선전 내용과는 다른 방송 내용 자체만으로도 많은 환상을 불러일으켰고 독립의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은연중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갔다.

따라서 청년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미국의 이승만이 ‘독립 조선’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또 임시정부 자체가 아예 미국에 있다고 믿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의 제국 섬유주식회사 청주공장에서 일하던 金正浚(24세)은 “미국에는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고 임시정부도 있으므로 조선은 독립될 것” 또는 “미국에는 조선의 임시정부가 있어서 일본이 패해도 조선은 반드시 독립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다.³²⁾ 또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일본 교토 聖峯中學의 和山昌永 등은 1943년 11월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고 “미국에는 조선의 독립 假政府가 있어 거기에는 조선의 旗가 세워져 있다”는 말을 퍼뜨렸다.³³⁾ 한편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 제6고등학교에 다니던 高昌燮은 “상해에는 독립 임정이 존재하고 헌법까지 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과거 1920년대의 상해 임시정부를 그대로 믿고 있는 청년학생들도 있었다.³⁴⁾

특히 이 시기는 미·일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조선이 독립하리라는 예측이 많았으므로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었다.³⁵⁾ 따라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승만이 조선 독립을 위해 활

30) 정병준, 『광복 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2009, p.204.

31) 이 시기 일제당국의 선전정책에 대해서는 필자의 「일제 식민지 지배 문화정책의 실체와 성격 - 戰時과시즘기 思想·宣傳政策의 강화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 94, 2000,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32)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총서』 12, pp.504~505.

33)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1403.

34)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p.353.

35)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日帝의 파시즘전쟁(1937~45)과 朝鮮民衆의 戰爭觀」

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소아마비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군산에서 한의원 조수 견습으로 일하던 李濬鎬(21세)는 1944년 2월, 일본이 지고 미국이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조선독립의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이승만은 미국 루즈벨트와 손을 잡고 하와이에 조선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일본에 선전포고 하여 독립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다.³⁶⁾ 일본 도쿄의 金鍾權, 河永吉도 미국에는 이전보다 많은 독립운동 志士들이 활동 중이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미 조선공사관이 있어서 廳舍 옥상에서 태극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고 또 중국 중경에도 조국독립의 선배 지사들이 활동 중”이므로 이들을 도와 독립국가를 창설해야 한다고 했다.³⁷⁾ 심지어 평소 일제에 협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받던 조선인 노무자 新島基榮조차도 일제패망 직전에는 “현재 미국이 지지하는 독립정권이 중경에 있고 대통령도 선출되어 있다. 또 두려운 것은 소련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 하여, 임시정부와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³⁸⁾

하지만 당시 미국이 중경의 임시정부를 지지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여러 차례의 승인운동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중경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던 데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 등 연합국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내세워 임시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유력한 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 인정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 이승만 개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 역시 각종 지원을 하기도 했으나 절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결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역사문제연구』 3, 1998), pp.204~214 참조.

36) 京城地法, 「昭和19年刑公 第3518號(判決文)」, 1945.2.3, 『독립운동사자료집』 12, p.1123.

37)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p.257.

38) 「岩特秘發 第510號, 期間滿了移入朝鮮人勞務者ノ指導ニ關スル件」, 1945.8.1, 岩手縣知事->內務大臣, 特別高等課, 『各府縣通報書類綴(內鮮)』, 1945(일본 와세다대학교 MF. R.65 內鮮關係書類 중에서).

4. 과거 항일운동 평가와 당대의 전망

1) 과거 항일운동에 대한 평가

일제말 전시과시즘기에 비밀결사나 각종 저항에 참여했던 청년학생층은 대체로 과거의 민족운동은 ‘실패’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독립의 조건과 가능성이 커진 ‘당대’에는 그러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 민족운동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민족운동의 선구자 내지 지도자를 자임하고 나선 청년학생층 중심의 비밀결사들에서는, 각자 스스로가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³⁹⁾

그런데 이들은 과거의 민족운동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거나 학습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당시로서는 직접 과거 민족운동에 참가했던 운동가들에게서 경험을 배우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조직이 아래로부터 자각해가던 선진적인 민중층 내에서 스스로 의식적 활동을 통해 소규모로 결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단편적으로 전해지던 선배들의 운동 경험이나 분위기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운동 경험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거나 그 토대를 안고 나아가는 것은 애초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운동은 대부분 기껏해야 3·1운동, 광주학생운동, 임시정부라는 명칭과 김일성, 이승만, 여운형, 김구 등 지도급 항일운동가의 이름 석 자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1920~30년대에 조선이나 일본에서 전개된 항일적인 대중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단편적으로나마 전시과시즘기에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이 과거 민족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과거의 민족운동은 3·1운동이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관심과 이

39)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일제말 비밀결사운동의 전개와 성격」(『한국민족운동사 연구』 28, 200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275~314 참조.

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文鍾達 등을 중심으로 일본 삿포로[札幌]에서 결성된 ‘토공민족주의그룹’의 논의를 보면, “조선독립만세사건은 한일합방에 의해 일본이 조선인을 멸시하고 차별한 데에 분개하여 정치인·지식인·학생 할 것 없이 거족적으로 독립만세를 외친 것인데, 혹은 중국 등지로 망명의 길을 떠나고 혹은 검거되어 이 운동은 일시 중단되었으나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함에는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있어도 어디까지나 끈질기게 단행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 하고 있다.⁴⁰⁾ 이밖에도 청년학생층의 비밀결사들에서는 3.1운동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을 종종 언급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고창섭 등 일본 오카야마현 제6고생들은 3.1운동 당시 학살된 조선동포와 투옥된 투사의 숫자가 방대하다거나 심지어 부녀자들조차 시위에 참여하여 용감히 血戰을 전개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시키면서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⁴¹⁾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그 명칭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고, 또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조차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앞 장에서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일본 도쿄의 비밀결사 竹馬契에서처럼 직접 민족적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이들은 당면한 민족운동의 지도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41년 6월 呂運亨을 도쿄의 海濱호텔에 초빙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독립운동 상황을 청취하였다.⁴²⁾ 한편 이 시기 학생들의 비밀결사 사건 가운데 일명 ‘제2차 광주학생운동 사건’으로 지칭되던 광주의 ‘無登會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영향도 컸다.

당시 독립과 건국을 모색·준비하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과거 민족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문제가 절실했다. 이들이 파악한 과거 민족운동의 실패 원인 중 가장 중요한

40)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p.277.

41) 위의 책, p.353.

42) 위의 책, p.348.

것은 ‘조선인의 단결과 운동의 통일성 부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운동 ‘상층’ 지도부의 통일되지 않은 분파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고 또 대중적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이 양자는 상호 관련성이 있었다. 과거의 “독립만세사건 등은 실력도 없고 통일도 잘 되지 않은 폭동에 불과하여 실패”했다거나,⁴³⁾ “조선독립만세사건은 민중의 일시적 무통제 폭동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⁴⁴⁾

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 교토에서 도지사[同志社]대생인 시인 尹東柱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비밀결사 활동을 했던 교토대생 宋夢奎 역시 “왕년의 만세사건은 한낱 충동적 감정에 종사하여 드디어는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았다.⁴⁵⁾ 송몽규는 본인이 만주에 있던 시절 ‘김구파’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김구파와 김원봉파의 대립” 등을 경험하고 1935년 11월에 중국 濟南의 李雄파의 독립운동단체로 옮기려 했던 경험도 언급하였다.⁴⁶⁾ 이처럼 당시 청년학생들 사이에서는 임시정부 등 내부에서의 ‘분파성’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시 청년학생들은 과거의 실패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중의 의식수준을 고양시켜 단결의식을 강화해야 하는데, 대중의 의식을 지도 계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을 중심으로 “과거 독립운동의 실패에 비추어 먼저 민족을 통솔할 만한 지도원리”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⁴⁷⁾ 따라서 일부에서는 종래의 조선독립운동이 지나치게 “외래 사상에 편승한 것으로 확고한 이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충동적·감정적 폭동으로서 실패”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학구적·이론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⁴⁸⁾ 또 과거의 운동이 지나치게 비합법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조선민중의 의식적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면서 “모름지기

43) 위의 책, p.353(岡山地方裁判所 判決文, 1943.2.28). 앞서 언급했던 高昌燮 등 일본 岡山縣 제6고등학교생 중심의 민족주의그룹의 논의 중에서.

44)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1230.

45) 위의 책, p.1378.

46) 『思想月報』 제109호, 1944.4~6,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p.139.

47) 일본 동아연맹 관련자의 영향 아래 조선인 유학생 중심으로 1940년 12월 결성되어 1943년경까지 활동하던 비밀결사 ‘我等’의 논의 중에서(山口地方裁判所 刑事部, 金昌沃외 3人の 判決文, 1944.10.6).

48) 앞의 宋夢奎 등의 논의에서.

합법 수단으로서 조선인의 실력을 양성하고 기회를 보아 쫓겨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⁴⁹⁾ “장래 東亞聯盟 등 합법단체에 은밀히 들어가 독립운동을 추진”할 것을 모색하기도 했다.⁵⁰⁾

과거 민족운동이 ‘실패’했다고 본 또 다른 이유로는 과거의 시기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전남 완주 출신으로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있던 金炳舜(21세)은 “과거에 있어서 조선독립운동이 불성공으로 마친 것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나 현하 일본은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의하여 국력이 현저하게 쇠퇴하고 영·미 등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 강화에 의하여 일본은 패전에 빠질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봉기하면 그 독립은 가능할 것”⁵¹⁾이라고 생각했다.

즉 과거의 항일민족운동은 실제로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객관적 정세가 아니었던 반면, 일제가 세계사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더욱 확대되어가던 당시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일본제국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시기는 조선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好機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대를 살아가는 조선인으로서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이 기회를 놓치면 조선은 오랫동안 불행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침략전쟁의 확대와 식민지 상황의 지속이라는 당대의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청년학생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 ‘영웅 출현’에의 희망과 당대 인식

과거의 항일운동을 ‘실패’로 평가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등장했던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조선에는 전체 민족운동을 지도해 갈

49) 平陽地法, 「地檢秘 第60號(公判請求書)」, 1943.2.5, 『鮮內檢事局情報』, 1943, pp.492~493. 경성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회사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潘俊浩 등이 1941년 1월 언급한 내용에서.

50) 앞의 비밀결사 我等의 논의 중에서.

51)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p.1238-1239.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과거 항일운동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강제병합을 반대했던 한 조선인이 독립문 벽에다 머리를 찧어 혈서를 쓰고 죽은 사실을 선전하고 다니는 청년도 있었다.⁵²⁾ 또 안중근, 윤봉길 등을 영웅이라 칭송하면서 본받자는 분위기도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민족 가운데 “위대한 인물도 두뇌가 뛰어난 인물도 많”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독립운동에 지장”을 초래해서⁵³⁾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시까지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과거의 민족운동이 운동가들 내부의 사상투쟁으로 실패했다는 인식은 다음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1942년 당시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공부하면서 비밀결사를 조직하려 했던 黃山熙烈(22세)은 <조선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수기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⁵⁴⁾

위인이라 칭송받고 있는 우리 조상은 저 세상에서 悲壯한 難地를 딛고 넘어 이제야 그 주의를 다 하려고 할 무렵에 사상 관계로 패배했다. 그 후 우리 동포는 어버이를 잃은 고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非常한 이 자들에게서 압박에 압박을 거듭 받고 있다.

또한 조선이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 역시 “조선에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⁵⁾ 인도의 간디처럼 희생적으로 몇 십 년 동안 지속해서 독립을 지향하면서 운동을 전개하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조선인은 ‘자기주의’에 빠져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52) 京城地法, 「昭和19年刑公 第3518號」, 1945.2.3, 『독립운동사자료집』 12, p.1123. 앞에서 언급한 군산의 李濬鎬가 문화중학원 재학시절인 1943년 11월 동료 생도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에서.

5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p.277. 앞서 언급했던 文鍾達 등 일본 札幌의 ‘土工민족주의그룹’에서 1944년 5월에 논의한 내용 중에서.

54) 『昭和特高彈壓史』 8, p.185 ;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1398.

55) 「제79회제국의회설명자료」. 경북 성주의 龍岩本置洞, 金城鳳術 등의 언급 중에서.

들었다.⁵⁶⁾ 조선인은 다소 이기적이고 “감투적·희생적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물론 조선에 민족운동을 지도할 만한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1940년 3월 한 모임에서 趙世庚(22세, 농업)과 宋正燮(24세)이 벌인 논쟁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조세경이 “현재 조선에는 독립운동의 선두에 일어나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라고 하자, 송정섭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⁵⁷⁾

아니다. 현재 일본 관헌의 탄압으로 표면에 나서지 못해도 경성의 여운형을 비롯해 쟁쟁한 민족주의자가 있고, 또 국외에는 상해에 한국임시정부 활동하고 게다가 만주에는 김일성 등이 조선독립의 기회를 엿보고 있고, 조선 내에도 이를 바라는 동지가 다수 있어서 기회만 도래하면 内外가 서로 호응하여 봉기할 것이다.

이처럼 국외의 임시정부와 김일성, 조선 내의 여운형 등 당대 항일운동의 지도자에 대해 모두 언급하면서 국내외가 서로 호응하여 봉기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에 민족운동을 이끌어 갈 만한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은 당시로서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로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웅적’ 인물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항일민족운동을 모색하려는 청년학생층에서는 일단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인격 완성”을 통해 민족을 지도할 만한 역량을 길러서, 안중근 등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외국의 위인이나 영웅에 대한 전기, 특히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자서전을 탐독하면서 그들을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

56) 평양의 점원 咸正幹(18세)은 1942년 12월 3일 동네의 일본어강습회에 강사로 출석하여 강습생들에게 “간디는 위대하다. 40년이라는 긴 기간 독립하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독립하려는 생각을 가진 조선인은 조선이라는 것을 일찍 잊어버렸다. 조선인은 자기주의 때문이다”고 언급했다(平陽地法, 「地檢秘 第195號, 昭和18年刑公 第91號 判決」, 1943.5.8, 『鮮內檢事局情報』, 1943, p.825).

57)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집』 11, pp.533~534.

었다.⁵⁸⁾ 현재로서는 서로 同列에 놓고 바라보기 어려운 독일의 히틀러, 중국의 장개석, 인도의 간디 등을 모두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자기 민족을 하나로 결집하여 민족을 위해 선두에서 지도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청년학생들은 ‘민족적 영웅’에 주목했다.

이와 같이 민족을 지도하고 통솔할 수 있는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던 청년학생들 가운데는 스스로 명망성 있는 항일운동가를 방문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모임에 초빙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조선 내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呂運亨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당시 민중계몽활동을 하고자 했던 비밀결사에서는 李光洙의 소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⁵⁹⁾ 간혹 이광수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평양의 비밀결사 大成組合처럼 安昌浩를 방문하기도 했다. 안창호를 찾는 경우는 대체로 실력양성론적 계몽운동과 경향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평양 등 평안도지역 출신이나 그 지역 조직이 많았다.

그런데 위 이광수⁶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청년학생층에서는 과거 조선인 민족운동가들 중 일부가 적극적으로 친일화 하여 일제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이 독립되면 이광수 같은 인물이 조선의 정치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독립시 지도자로 尹致昊가 적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⁶¹⁾

물론 저항에 참여한 청년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조선인 명망가가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나아가 적극 협력하는 경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58)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2차대전기 조선민중의 세대별 전쟁인식 비교」(『역사와 현실』 제5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pp.72~74 참조.

59) 위의 글, pp.71~72 참조.

60) 李光洙는 ‘수양동우회 사건(1937.6.6)’으로 검거되어 1940.8.20 京城地法에서 징역 5년형을 언도받았으나, 1941.11.17 복심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왔다. 친일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을 맡았으며, 이후 조선문인보국회 등에서 시국강연회와 전쟁문학의 밤 등을 주최하고, 『매일신보』 『동양지광』 『국민문학』 등의 잡지에 ‘內鮮一體’를 선전하는 글을 실는 등 다양한 친일행각을 벌였다.

61) 전자는 강원도 삼척의 은행원 新羅台煥의 경우이며(「제79회제국의회설명자료」 중), 후자는 일본 도쿄의 고학생 松浦仁權과(海州地法, 「地檢秘 第382號(公判請求書)」, 1943.6.14, 『鮮內檢事局情報』, 1943, p.1000) 李義燮 등의 경우이다(「제79회제국의회설명자료」 중).

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했다. 대다수 비밀결사의 활동방침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대체로 당시 일각에서 제기되던 참정권 논의나 자치론 등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있었다.⁶²⁾ 예를 들어 대구 출신으로 일본 주오[中央]대학에 다니다 중퇴한 河鎮學(21세)은 그의 친구가 “조선인에게도 代議士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하자, “저 朴春琴과 같은 대의사는 조선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롭게 하는 자이다. 저 놈은 조선에 돌아가면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며 맞섰다.⁶³⁾ 친일적인 지식인이나 관료 등을 공격하면서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그들을 테러하려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비밀결사의 활동방침을 보면 친일파 高官에 대한 암살이나 테러 등을 행동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비밀결사에 참여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 내에서도 지식인이나 운동가들 중 일부가 일제측에 동조하여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들의 입장에서 과거에 민족적 인사로 존경받다가 친일화해 간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초기 친일파인 李完用 등을 ‘한국의 敵’, ‘친일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의 ‘불온’ 낙서 등을 보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일제강점 이후 민족적 성향에서 친일적 경향으로 나아간 지식인이나 관료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간혹 독립 이후의 지도자에 윤치호나 이광수가 거론되기도 했던 것이다. 심지어 臨戰報國團 같은 친일단체를 독립운동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민족주의 단체로 착각하고 단장 崔隣을 민족의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⁶⁴⁾

62) 예를 들면 일본 大阪의 한 민족주의그룹에서는 조선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투쟁과 같은 “미온적 운동으로서는 목적 관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독립운동사자료집』 13, p.1344).

63) 「特內鮮 第906號, 陸軍刑法違反鮮人被疑者檢舉送局に關する件」, 1939.4.19, 『警視廳情報』 1938~1939.

64) 潘俊浩, 杉間龍一, 吳亨善 등은 1941년 1월부터 1942년 1월경까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명확하듯이 비합법수단에 의한 독립운동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 오로지 합법수단에 의해 조선인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특히 이광수의 소설은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농민계몽의 필요성과 민족 의식을 갖도록 하는 주된 자료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그를 ‘민족적’ 지식인 정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를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청년학생들도 있었다. 평소 이광수를 ‘숭배’하던 한 중학생이 그를 방문했다가, 이광수가 자기 자식에게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조선인이면서 일본어를 사용함은 어째서인가”라고 힐난하기도 했고,⁶⁵⁾ 또 일본 고베[神戸] 중앙신학교의 金永昌은 “독립운동자 이광수가 제일 먼저 香山(香山의 오기-필자)이라고 개명한 것은 매국노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⁶⁶⁾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광수는 여전히 존경하는 인물이었으며 따라서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이광수 같은’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⁶⁷⁾ 즉 당시 청년학생들 중에는 이광수의 친일행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그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그의 이미지를 여전히 ‘애국자’나 ‘민족운동가’로 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광수를 직접 방문했던 청년들 중에는 그의 변모된 모습에 혼란스러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정리하기도 했다. 그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민족적’ 입장과 그의 현실 행동을 동시에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배재중학을 나와 충남 서천에서 ‘국민학교’ 측탁교원으로 있던 金

그들은 “최근 경성에서 결성된 임전보국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을 가장한 민족주의단체”라고 규정하고 함께 임전보국단체 가입하여 독립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경성에 가서 단장 최린을 면회하고 그의 지도 하에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고 합의했다(平陽地法, 「地檢秘 第60號, 公判請求書」, 1943.2.5, 『鮮內檢事局情報』, 1943, pp.492~495).

65) 춘천공립중학교생인 李櫺의 언급 중에서(京城地法, 「昭和16年刑公 第2591號」, 1942.5.19).

66)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1257. 이광수의 창씨명은 고야마 미타로[香山光郎]이다.

67) 한 예로, 강원도에서 소학교 훈도로 있던 李俊桓은 “『인생의 향기』의 저자 이광수는 향토애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책상 정면에 조선지도를 걸어 놓고 조선민족의 생활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민족의 과거와 장래를 생각하며 그 각성을 염원하였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그는 진실로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를 모범삼아 농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각성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조선독립은 오로지 농민의 각성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했다(『독립운동사자료집』 13, pp.1589~1595).

永憲(25세)은 평소 “나는 이광수·이기영·송영 등의 지도를 받아 문학으로써 조선독립을 위해 민중을 지도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이광수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이광수에게서 시골에 가면 ‘농촌정신대’를 조직하여 농민을 철저히 ‘皇民化’시키라는 권유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의 말을 듣고 그는 1944년 8월에 동료에게 “농촌정신대를 조직하겠지만 시기가 오면 이를 逆用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일어서게 할 작정”이라면서, 자신은 “황민화보다는 독립을 위해 쓸 작정”이라고 주장하다가 검거되었다.⁶⁸⁾

이와 같이 민족운동의 지도조직들이 표면화 되어 있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조차 과거 ‘민족적’ 인사들의 변절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었던 듯하다. 민족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상층의 조직들이 대부분 와해되어버린 상황에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청년학생들로서는, 당시 언론 등에서 자주 등장하던 ‘친일화’한 과거의 ‘민족적’ 인사들을 떠올렸고, 경우에 따라 이들을 여전히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이광수의 경우,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그의 소설이 암암리에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교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半信半疑했던 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청년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영웅시’되던 인물은 김일성, 여운형, 김구, 이승만 등이었다. 국내 민족운동가 중에는 여운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었고, 독립 후의 지도자로도 적합하다는 인식이 많았다.⁶⁹⁾ 이 시기 비밀결사들에서는 1930년대에 조선 내에서 지속적으로 혁명적인 대중운동과 당재건운동을 전개했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철저히 비합법적으로 전개되다가 일제에 검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듯한데, 심지어 사회주의적 이념을 모색하거나 지향하던 학생조직들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

68) 京城地法, 「昭和19年刑公 第3698號」, 1945.4.18, 『독립운동사자료집』 12, pp.1117~1121.

69) 예를 들어, 경성부의 工員인 全珪弘(29세)은 1944년 10월 “독립이 되면 우리의 지도자는 呂運亨이 가장 적격자”라 했다(京城地法, 「昭和20年刑公 第1000號」, 1945.6.11).

다.⁷⁰⁾

어찌되었건 이 시기 선진적인 청년학생층은 대부분 전체 민족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갈 ‘영웅’의 출현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는 그러한 인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스스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자기훈련을 하여 ‘민족적 지도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덜 자각한 민중을 계몽시켜 일제가 패망하는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로 이끌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일제의 철저한 사상탄압과 여론통제 하에서 조선 내 항일운동을 이끌어갈 만한 조직이 부재했던 일제말 전시과시즘기(1937~45)에,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이 당대 및 과거의 항일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해의 결과 그들은 무엇을 희망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조선이나 일본에 있던 청년학생층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항일운동세력은 만주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무장부대였다. 조선 내에서 이렇다 할 만한 민족운동 조직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무장세력은 비교적 왕래가 잦은 만주와 국경근처에서 ‘보천보전투’ 등 일본군·경찰과 직접 전투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김일성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풍문으로 퍼져 갔고, 이는 항일운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했다. 따라서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결성된 청년학생 중심의 소규모 비밀결사들에서는 김일성의 활약상을 토론하면서 만주로 가서 합류하려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무장투쟁을 목적으로 만주로 가려는 청년들이 생겨났다.

70) 물론 이 시기에도 경성콤그룹 같은 대규모 조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청년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유명한 공산주의자 權五稷(特要)은 경성의 중등학교 학생 文奉成을 비롯하여 배재·경성농업·휘문·한영상업 등의 학생들을 지도했고, 이로 인해 11명의 학생이 1940년 12월 15일 종로서에 검거되기도 했다(『제79회제국의회설명자료』 중).

당시 청년학생들은 외국처럼 조선에서도 ‘민족적 영웅’이 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에 관한 소식이 퍼져 가자, 자연스레 그에게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청년학생들이 바라던 ‘영웅’은 전체 민족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품과 지식, 의지와 실천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풍문은 그를 대학까지 졸업했다는 지적·학문적인 면과 실제 행동상의 과감한 실천력, 이 兩者를 동시에 겸비한 인물의 典刑으로 둔갑시켰다. 대중적 차원의 이러한 바람과 만주지역 무장투쟁의 구체적 성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일제말에 등장한 김일성에 대한 ‘신화적 환상’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관내 항일운동 조직이나 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막연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학생들은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蔣介石이나 八路軍 산하에 조선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광복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만주처럼 중국관내에도 조선인 무장부대가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기도 했다. 당시 청년학생민중들은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1940년대 들어 전개된 구체적 변화는 알지 못했다. 다만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重慶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송출된 단파방송을 우연히 접하거나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특히 미국에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행세한 이승만의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지자,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환상을 가졌고 독립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승만이 ‘독립’ 조선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시정부가 미국에 있다고 믿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한편 당시 청년학생들은 과거의 민족운동은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독립의 조건과 가능성이 커진 당대에는 과거와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단결과 운동의 통일성 문제, 과거에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 “조선에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인도의 간디와 같은 지도자가 조선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간혹 여운형이나 이광수, 윤치호, 안창호 등을 꼽기도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청년학생들 가운데는 과거 민족운동가들 중

일부세력이 적극적으로 친일화 하여 일제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대다수 청년학생 중심의 비밀결사에서는 친일파나 고관의 처단·암살을 행동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광수의 계몽 소설이 여전히 비밀결사의 주요 애독서였던 상황에서 이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국내에 있던 항일운동가 가운데 청년층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여운형이었으며, 따라서 독립 후의 지도자로 여운형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요컨대 이 시기 선진적인 청년학생층은 대부분 전체 민족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갈 ‘영웅’의 출현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는 그러한 인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스스로 ‘민족적 지도자’로 성장하여 ‘김일성부대’나 광복군 등 해외 무장세력이 국내로 진공하면 민중봉기를 일으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參考文獻

-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30, みすず書房, 1976
-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 강만길 외, 『통일지향 우리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鮮內檢事局情報』, 1943
-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月報』 제109호, 1944.4~6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권
-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보병독립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3, 별집3권
- 明石博隆·松浦總三 編, 『昭和特高彈壓史』 8권
- 변은진, 「2차대전기 조선민중의 세대별 전쟁인식 비교」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 변은진, 「일제말 비밀결사운동의 전개와 성격, 1937~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 변은진, 「일제 식민지 지배 문화정책의 실체와 성격 - 戰時과시즘기 思想·宣傳政策의 강화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4, 국사편찬위원회, 2000
- 변은진, 「日帝의 과시즘전쟁(1937~45)과 朝鮮民衆의 戰爭觀」 『역사문제연구』 3, 역사문제연

구소, 1998

兵庫朝鮮關係研究會, 『兵庫と朝鮮人』, 1985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아시아문화사, 1999

전북지역독립운동추모탑건설추진위원회, 『전북지역독립운동사』, 1994

정병준, 『광복 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조동걸, 「韓國近代學生運動組織의 성격변화」,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93

한국역사연구회,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 9, 11, 12권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홍석륜, 「1940~45년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韓國史論』 24, 서울대 국사학과, 1991

《東亞日報》, 《京城日報》, 《元山每日新聞》 등

《警備關係綴(國境ノ部)》, 《警視廳情報》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경무 문서 중)

《各府縣通報書類綴(內鮮)》, 1945 (일본 와세다대학교 MF. R.65 內鮮關係書類 중)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의 철저한 사상탄압과 여론통제 하에서 조선 내에 항일운동을 이끌어갈 만한 조직이 부재했던 일제말 전시과시즘기(1937~45)에,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이 당대 및 과거의 항일운동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희망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당시 조선이나 일본에 있던 청년학생층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항일운동세력은 만주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무장부대였다. 이른바 ‘김일성 부대’는 비교적 왕래가 잦은 만주와 국경근처에서 보천보전투 등 일본군·경찰과 직접 전투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김일성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풍문으로 퍼져 갔고, 이는 항일운동에 나서고자 했던 청년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했다.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청년학생 중심의 소규모 비밀결사들에서는 김일성의 활약상을 토론하면서 만주로 가서 합류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청년학생들은 외국처럼 조선에서도 ‘민족적 영웅’이 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들이 바라던 ‘영웅’은 전체 민족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품과 지식, 의지와 실천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김일성을 대학까지 졸업했다는 지적·학문적인 면과 실제 행동상의 과감한 실천력, 이 양자를 동시에 겸비한 인물의 전형으로 둔갑시켰다. 대중적 차원의 이러한 바램과 만주지역 무장투쟁의 구체적 성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일제말 등장한 김일성에 대한 ‘신화적 환상’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관내 항일운동 조직이나 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막연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들은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장개석이나 팔로군 산하에 조선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광복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만주처럼 중국관내에도 조선인 무장부대가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기도 했다. 당시 청년학생들은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단파방송 등을 통해 우연히 접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행세한 이승만의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지면서 독립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승만이 ‘독립’ 조선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시정부가 미국에 있다고 믿는 등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당시 청년학생들은 과거의 민족운동은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독립의 조건과 가능성이 커진 당대에는 과거와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단결과 운동의 통일성 문제, 과거에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 “조선에 인

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인도의 간디와 같은 지도자가 조선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간혹 여운형이나 이광수, 윤치호, 안창호 등을 꼽기도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청년학생들의 비밀결사에서는 친일파 처단을 행동목표로 삼고는 있었으나 과거 민족운동가들 중 일부가 적극적인 친일협력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조선 내에 있던 항일운동가 가운데 청년층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여운형이었으며, 따라서 독립 후의 지도자로 여운형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렇게 ‘민족적 영웅’이 부족한 조선의 현실에서 청년학생들은 스스로 ‘민족적 지도자’로 성장하여 국외 무장세력의 국내 진공에 호응하여 민중봉기를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제어 : 청년학생, 비밀결사, 항일운동, 민족운동, 전시파시즘, 김일성, 이승만, 여운형, 이광수, 임시정부, 영웅

日文抄録

日帝末(1937～45)青年学生層の国内外抗日運動勢力に対する認識

卞恩眞

本稿は、日帝の思想弾圧や与論統制下で、朝鮮内の抗日運動を導いていける組織が不在していた日帝末戦時ファシズム期(1937～1945年)、相対的に先進的であった青年学生らが当代及び過去の抗日運動をどう理解したか、その結果、彼らは何を希望したのか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

当時、朝鮮や日本にいた青年学生層にとってもっとも大きく影響した抗日運動勢力は、満洲の金日成を中心とした武装部隊であった。いわゆる、「金日成部隊」は、比較的往来が頻繁であった満洲と国境近所で「普天堡戦闘」など、日本軍・警察と直接戦闘を行っていたからである。これによって、金日成部隊に対するうわさがひろがり、このうわさは抗日運動に乗り出そうとする青年学生層にとってひとつの突破口を提供してくれるのである。当時、朝鮮や日本で自発的に結成される青年学生中心の小規模の秘密結社などでは、金日成の活躍について討論しながら満洲へ向かって合流しようとする場合が多かった。当時、青年学生層は、外国のように朝鮮でも「民族的英雄」が現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た。しかし、彼らが望んでいた「英雄」は、民族全体を統一的に指導できる人格や知識、意志や実践力などをすべて取り揃えた人物であった。そういうわけで、事実と違って、金日成を大学まで卒業したというその知的・学問的側面と実際行動の果敢な実践力、この兩者を同時に兼備した人物の典刑として通甲させた。大衆的次元からのこのような希望と満洲地域の武装闘争の具体的成果が結合してつくりあげられたのが、日本帝国末登場した金日成に対する「神話的幻想」であった。

これに反して、中国管内の抗日運動の組織や運動家への関心は漠然とした水準からあらわれた。しかし、青年らは臨時政府に対しては高い観心を持っていたし、さらに、蒋介石や八路軍傘下に朝鮮人が参加しているという事実にも関心を見せる場合もあった。光復軍の活動が本格化してからは満洲のような中国管内でも朝鮮人武装部隊が活躍しているという事実鼓舞されたりもした。当時、青年学生層は臨時政府の存在そのものについては知っていたのだが、具体的には知っていなかった。短波放送などを通じて偶然接するのがほとんど全部である状況で、アメリカで臨時政府の大統領として成り済ました李承晩のVOA放送が伝えられて、独立の時期が近づいてきたのを感じた。しかし、李承晩が「独立」朝鮮の大統領として選出されたと思ったり、臨時政府がアメリカに存在すると信じたりするなど、間違った認識を持っている場合が多かった。

一方、当時の青年学生層は、過去の民族運動は「失敗」したと見る見解が一般的で

あった。したがって、独立の条件と可能性が高まった当代には、過去のような失敗の前轍を踏んではいけないと考えた。失敗の原因については、朝鮮人の団結と運動の統一性問題、過去には独立を勝ち取ることのできる時期をむかえていなかったこと、「朝鮮に人物がないから」という認識が支配的であった。彼らは、印度のガンジーのような指導者が朝鮮には不足していると考えながら、度々、呂運亨や李光洙、尹致昊、安昌浩などの名をあげたりもした。ここでわかるように、大多数の秘密結社では、親日派処断を行動目標としてはいたのだが、過去の民族運動家らのなかの一部が積極的に親日協力の道へ差しかかったという事実をちゃんと把握できない場合も多かった。当時、朝鮮内で活躍していた抗日運動家のなか、青年層にもっとも広く知られていた人物は呂運亨であって、それで独立後の指導者として呂運亨がふさわしいという認識が強かった。このように、「民族的英雄」が足りなかった朝鮮の現実のなかで、青年学生層は、自ら「民族的指導者」として成長し、海外武装勢力の国内進攻に应运、民衆蜂起を通して独立を勝ち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た。



主題語：青年学生, 秘密結社, 民族運動, 抗日運動, 戦時ファシズム, 金日成, 李承晩, 李光洙, 呂運亨, 臨時政府, 英雄

투고일：2010.01.15

심사일：2010.01.27

게재확정일：2010.02.08